

01 교회소식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

땅끝까지 이르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순수기독교방송 GCN방송이 세계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NRB 총회 및 박람회 참가하였다.

02 생명의 말씀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선진들처럼 어떤 역경도 기쁨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유의할 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04 간증

“치료의 역사, 참으로 놀랍네요!”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뇌혈관질환을 치료받은 장춘희 집사, 경추골절을 해결받은 콜롬비아 히메나 까브레라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830호 2018년 3월 1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방송, 2018 NRB 총회 및 박람회 참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방송 선교의 지경 다져



기독교방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NRB(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0개 단체가 소속되어 방송 기술과 프로그램을 교류하며 방송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 내슈빌 시에서 열린 세계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2018 NRB 총회 및 박람회'에 GCN 방송이 참가해 방송 선교의 지경을 다졌다. GCN방송(www.gcntv.org)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하는 순수기독교방송이다.

26일(월), '그레이트 커미션' 리셉션에 참석해 미국 CBN 방송의 마이클 리틀 박사, NRB 국제위원회 위원장 스텐 지터 박사, 전 NRB 회장 프랭크 라잇 박사, 코이콥 아들드 인스 회장 등을 만나 교제했다. 이 밖에도 비전 아프리카 대표 선데이 오누하 총회장의 프로그램 요청과 인스퍼레이션 네트워크 리사 무라디안 국장의

방송 협력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8). 27일(화) 오전에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특별 연사로 초빙된 슈퍼세션에, 오후에는 개막식에 함께했다(사진 1).

28일(수), NRB 제리 존슨 회장의 박람회 개막 선언과 테이프 커팅 후 부스 홍보가 시작됐다(사진 6).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과 예능위원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GCN방송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사진 2, 4, 5, 7). 불가리아 크리스천 텔레비전 대표 블라고베스티 벨레프 목사는 "새롭게 시작한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설교 프로그램이 불가리아 전국 및 유럽 등 20억 인구에 방송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감사 인사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러시아 방송 임팩트 TV 유리 체르네스키 사장은 이스라엘 YES 네트워크 진입 계획과 향후 방송 협력을, 엔라쎬 TV 씨저 에스파놀 국장은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을 소개하며 방송 협력을 제안했다. IBN TV 조슈아 와이즈 부사장은 최

신 방송 기술 동향을 전하며 달라스와 LA 지역의 방송 협력을 제의했다.

특히 파나마에 거주하는 미스실라 로드리게스 성도가 부스를 찾아와 "엔라쎬 방송을 통해 매주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간증해 설교 프로그램 다국어 제작 및 방송 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이날 오후에는 박람회 전시자 및 참가자들에게 방송 사역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러닝 아레나'(배움의 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방송'이라는 주제로 GCN 방송 국장 김진홍 장로가 작년 9월 초 미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를 기도로 소멸시킨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사진 3).

미국 영적외교단체 부회장 마크 바잘레프 목사가 참석해 그때 상황을 증언했으며, NRB 전 부회장이자 현재 제임스 케네디 선교회 운영사장인 린다 스미쓰 박사는 "허리케인 어마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 10월 6일자에 '허리케인 어마, 대한민국 목회자 이재록 박사의 기도로 소멸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다.

3월 1일(목), GCN방송은 부스 홍보 및 CBN(기독교방송네트워크) 초청 오찬과 기독교영화 시사회에도 참석하여 기독교영화 제작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2일(금)에는 동성연애 등 공공정책을 논하는 슈퍼세션에 참석하여 방송 선교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고, 폐회 만찬 참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아론 머서 NRB 정부 관계 부회장은 GCN방송이 NRB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 기독교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NRB TV 시장이자 NRB 부회장인 트로이 밀러 박사는 "NRB TV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방송되어 미국의 많은 시청자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24~26)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보상으로 축복을 받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이거나 온전치 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2. 하늘 상급을 바라본 모세의 신앙

모세는 B.C. 15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크게 번성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새로 태어나는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기 모세는 석 달 간 숨겨 키움받다가(히 11:23)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지지요.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됐고, 이를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은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해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배웠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과 애굽 땅에서 살게 된 배경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큰 나라를 이루리라 약속하심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1)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장성한 모세는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만 의분이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이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궁의 안락한 삶

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언제 군사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지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4~26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스스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고난도 참고 생명 대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연단하신 뒤 마침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매순간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세등등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달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흥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듯 백성과 바다 가운데를 건널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졌다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광야로 끌어나 죽게 한다고 원망했지요.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며 온 힘과 중심을 다해 감당했지요.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을 위해 대신 회개할 뿐 아니라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2) 라고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여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며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민 12장).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심은 모세의 마음을 연단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하시고, 상급을 쌓아 하늘에서 큰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3)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마음 중심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모세를 비방하며 반역할 때에도 모세는 같이 싸우거나 변론하지 않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고라가 유력한 족장 중에서 250명을 꺾어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앞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산채로 땅속으로 삼키셨지요(민 16:1~33).

이처럼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랑으로 온 집에 충성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신앙을 소유했을까요?

1.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조건 충성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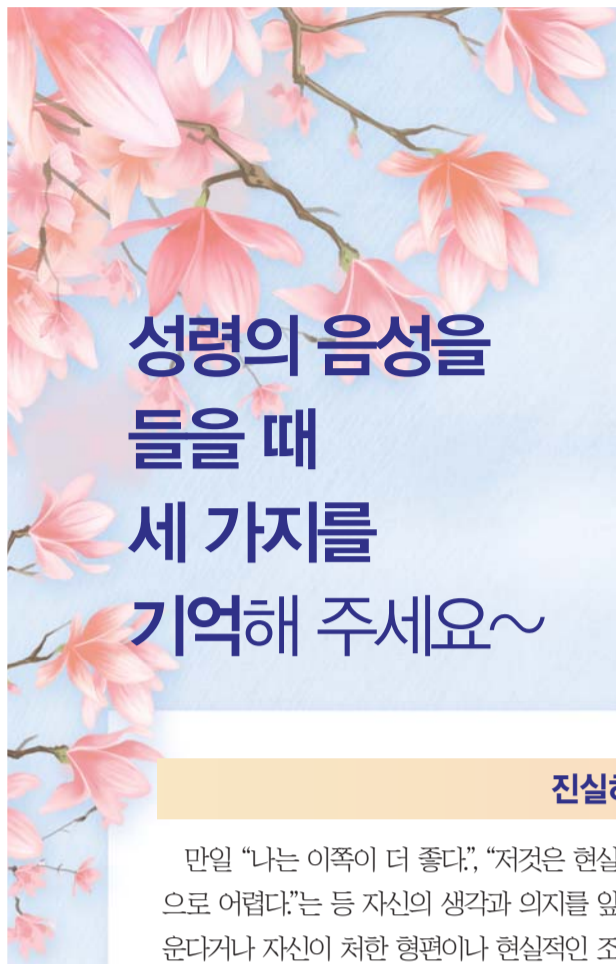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선물로 보내 주신다. 로마서 8장 14~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14:17)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마음을 진리로 일궈야 한다.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마음이 점점 진리로 채워져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다.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



마음을 진리로 일궈 영적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해요!

만일 “나는 이쪽이 더 좋다”, “저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운다거나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들

을 수 없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뜻이라

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인도받을 수 있다.

자신의 틀과 이론, 자기적인 의 등으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돼요!

원래부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다니엘의 굳은 절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정립했다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함으로 화평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육

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틀과 이론, 자기적인 의 등으로 진리를 착각하여 정작 진리를 알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어느 한계 이상을 뚫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오랜 세월 신앙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비진리가 아니라면 각 사람의 신앙과 형편에 맞게 방법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착각해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설령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어도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진리로 조명해 보아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으면 순종해야 해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하여 지켜 행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명심하지 못해 지켜 행하지 않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먼저 오게 된다. 만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결국 들리던 성령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게 된다. 성령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심히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범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져서 두려움마저 없어지고 마침

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화인맞은 양심이 되면 자기의 유익을 좇아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가니 어느새 죄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 나가면 점점 그 음성을 밝히 듣게 되어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신속하게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만 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 순종한다면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비결은 성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자녀가 되면 그 마음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받을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24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신속히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성령과 밝히 교통하며 신부단장을 마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을 마음껏 펼치는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3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8.3.18~3.24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버지의 섭리 1
- 믿음의 분량 1-5
- 창세기 강해 42-41
- 요한일서 강해 21-27
- 요한계시록 강해 46-55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9-12
- 참된 성전
- 목자의 마음
- 십자가의 도 3-7

GCN TV설교

- 김추인 어두움 2(이수진 목사)
-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82(이희선 목사)
- 읍기 강해 45(신동초 목사)
- 이드로의 방문(정구영 목사)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김자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관능 스페셜 20
- 모두 드려요 53
- 옛날 옛적에(시즌2) 3
- 내 마음의 찬양 35
- 일콩달콩 어여쁜 울동 9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5
- 마지막 때 6
- 창조와 과학 4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5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6
- 뉴욕 연합대성회 1

전국 어디서나 **allelu tv 882**번

“뇌혈관질환으로 기억이 끊겼으나 권능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장춘희 집사 (67세, 1세대 6교구)



지난 2월 1일(목), 출장을 간 딸이 저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딸은 손녀에게 전화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라.”고 부탁했고, 저는 신경내과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마디 물어보시며 손과 발을 움직여 보라고 하시더니 중풍은 이미 왔고 뇌경색에 뇌졸중, 일과성 전기역장애가 의심된다고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지역 기도회 참석 후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어찌된 일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MRA(뇌혈관 공명검사) 촬영 후 결과를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뇌간(목 뒤에서 뇌 쪽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관)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뇌간이 위로 올라가면서 끊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병실로 돌려보낸 뒤, 가족에게 이 상태로는 얼마 못 사시니까 이제는 하늘에 맡기고 기도하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뇌에 이상이 있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남편(조준 장로)을 통해 2010년부터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열심과 행함이 너무 부족했던 모습이 떠올라 죄송해서 회개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의 도움으로 산상기도 중에 계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요청 서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 이제 됐구나!’ 하며 비로소 안심이 되었고 밤잠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은 저는 너무나 신속한 하나님의 역사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수고하셨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면담을 통해 뇌 전체에 혈류가 아주 잘 통하고 있고 양측으로 영양 공급도 잘해주고 있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지요.

실제로 결과지를 보니 뇌관의 끊겨 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혈관이 또 좁아질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묻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의 기도로 5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한 저는 새 생명을 얻은 듯 감사가 넘쳐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요즘은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만민뉴스도 꾸준히 전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역사를 몸소 체험함으로 치료받고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엔라쎬 방송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로 경추 골절을 치료받았어요”

히메나 까브레라 성도 (41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늘 갈급하여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실 되게 증거해 주시는 참 목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2010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속력을 내며 달려오던 뒤차가 그만 제차를 강하게 들이박은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목을 다치고, 병원에서는 두 번째 경추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목 깁스를 착용해야 했기에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움직일 수 없었고, 잠도 앉아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우연히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을 통해 한국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설교가 끝날 무렵이라 얼마 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다음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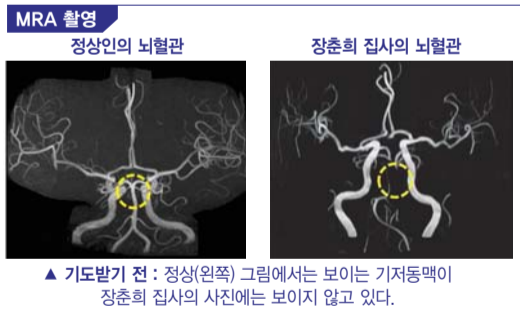
드디어 주일이 되었고,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시리즈 설교였는데, 제 영혼에 신선한 큰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야!’ 감탄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큰 은혜를 받았지요.

설교 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라는 말씀에 손을 목에 살포시 얹고 기도를 받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받은 즉시로 통증이 사라지더니 목을 앞뒤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료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후 목 깁스를 풀고 오래간만에 베개를 베고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 예배드리며, 그해 12월에 만민의 양 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콜롬비아에도 만민의 지교회라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2012년 1월 콜롬비아만민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지요. 이제는 자녀들도 모두 전도되어 천국 소망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권능의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히메나 까브레라 성도(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와 자녀들



▲ 기도받기 전 : 정상(왼쪽) 그림에서는 보이는 기저동맥이 장춘희 집사의 사진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 기도받은 후 : 우측내경동맥(왼쪽)과 좌측내경동맥(오른쪽) 뇌혈류의 흐름이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